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축구’로 파이널A 진출”

이정규 광주FC 신임 감독 취임 인터뷰

1차 동계훈련 ‘공격적인 수비’ 역점, 일관성 있게 준비
젊은 선수와 베테랑 동등한 기회, 훌린 땀의 가치 믿어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축구’로 파이널A에 진출하겠습니다.”

광주FC 제8대 사령탑에 선임된 이정규 감독이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규 감독은 “광주가 선택해 주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 광주민의 축구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부터 3년간 광주에서 수석코치로 활약하며 광주FC 중흥기를 이끈 그는 “광주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기존의 시스템 축구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보완과 추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선임된 코칭스태프와 함께 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정규 감독만의 축구스타일을 묻는 질문에 “공간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축구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축구가 제 철학”

이라고 강조하며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광주는 결과만 바라보고 온 팀이 아니었다”며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을 만드는데 광장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5일부터 26일까지 태국 후아힌에서 1차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2월 1일부터 15일 까지 남해에서 2차 훈련을 통한 본격 담금질에 나선다.

이정규 감독은 1차 동계훈련 중점 과제로 ‘공격적인 수비’를 제시했다.

그는 “보수적인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수비에 치중할 것”이라며 “견고한 수비 구조와 압박수비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은 결과로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광주는 그동안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정규 신임 광주FC 감독이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광석 코치, 이상용 코치, 김병곤 골키퍼 코치, 박근영 피지컬 코치, 김기현 분석 코치

광주FC, 2026시즌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K리그 레전드·유소년·해외파 등 다양한 경험 ‘눈길’

프로축구 광주FC가 2026시즌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정규 신임 감독을 필두로 새출발에 나서는 광주는 김광석 코치, 이상용 코치, 김병곤 골키퍼 코치, 박근영 피지컬 코치, 김기현 분석 코치로 코칭스태프 구성은 완료했다.

김광석 코치는 2003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 후 K리그 통산 451경기를 출전한 K리그 ‘레전드’ 출신이다.

2022년 현역 은퇴 이후 인천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지도자 경력을 쌓았으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단에 안정감과 노하우를 더할 예정이다.

이상용 코치는 성남FC U15 감독, U18 수석 코치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프로 선수들을 육성해 온 지도자다.

2024년부터 2년간 수원삼성 코치로 활동했으

며, 광주에서는 김광석 코치와 함께 이정규 감독을 보좌하며 팀 운영 전반에

힘을 보탠다.

김병곤 골키퍼 코치는 인천하이테크, 세종스포츠토트, 충남아산FC, 경남FC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오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축적해왔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골키퍼 포지션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근영 피지컬 코치는 대전하나시티즌, 전북현대, 베트남 국가대표팀 등에서 피지컬 코치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단의 커디션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기현 분석 코치는 독일에서 스포츠학을 전공한 해외 유학파 지도자로, 독일 현지 유소년 지도자 경험을 시작으로 FC목포, 전북현대 등에서 코치 및 전력분석관으로 근무했다.

해외 축구 환경에서 쌓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의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



는다.
이외에도 김광태, 박순호, 이인성 의무트레이너, 서정민 전력분석관 등이 합류해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붉은 말의 해, ‘새로운 100년’ 힘차게 열자”

전남도체육회는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개최하고, 창립 80주년을 맞아 전남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사진)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열고 전남체육의 미래 비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송진호 회장의 신년사, 직원 대표의 새해 다짐, ‘회장에게 바란다’ 소통의 시간, 청렴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송진호 회장은 “2026년은 전남도체육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지난 80년간 선배 체육인들이 일궈온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청렴선포식에서 전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실

천 활동과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시무식을 계기로 ‘전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남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체육회, 2026년 창립 80주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 개최



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는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상반기 영입선수 등록이 불가능한 악재를 안고 있다.

이 감독은 이에 대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평계를 대고 싶지 않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훈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묵묵히 광주의 길을 가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팀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입된 선수들의 팀 적응과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6월 이후 새로운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로팀 감독으로 첫발을 내딛은 그는 “광주는 특정 선수로 하는 팀이 아니고 선수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는 팀이다. 선수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광주만의 시스템 안에서 얼마만큼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잊지 않고 준비 과정에 충실한 광주민의 축구를 보여드리겠다. 젊은 선수와 베테랑 모두 동등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훈련장에 훌린 땀 방울의 진정한 의미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베테랑 김경민과 3년 더 동행

J리그 출신 골키퍼 이윤성도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거미손’ 김경민(34)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지난 3일 “베테랑 골키퍼 김경민과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광주에 입단한 김경민은 합류 직후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으며 팀의 최후방을 책임졌다. 입단 첫 시즌부터 김경민은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김경민은 단순한 선방 능력을 넘어 빌드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 전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생애 첫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로서 입지를 공고하였다.

김경민은 현재 K리그 통산 198경기에 출전 중이며, 내년 시즌 통산 200경기에 도전할 전망이다. 광주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경민의 연장 계약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는 일본에서 뛴 2005년생 유망주 골키퍼 이윤성이 영입도 발표했다.

총의중-의정부 G스포츠클럽 출신인



김경민



이윤성

이윤성은 어린 나이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유망주 골키퍼로, 안정적인 기본기와 경기 이해도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고고 졸업 후 2024년 J리그 사간도스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윤성은 이후 YSSC 요코하마로 임대 이적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윤성은 뛰어난 제공권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공중볼 처리에 강점을 지닌 골키퍼다. 여기에 일본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경기 운영 템포와 조직적인 수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축적했으며,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과 넓은 뒷 공간 커버 능력 또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희중 기자

피겨 차준환,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 시청)과 기대주 김현겸(고려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차준환은 4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 피겨 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8.03점, 예술점수(PCS) 92.31점, 총점 180.34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 프로그램 점수 97.50점을 합한 최종 총점 277.84점으로 우승했다.

아울러 1차 선발전 최종 총점 256.72점을 더한 1, 2차 선발전 합산 점수 533.56점으로 전체 1위에 올라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차준환은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기록을 쓰게 됐다.

한국 피겨 선수가 올림픽 3회 연속 나서는 건 1988 캘거리 대회, 1992 알베르빌 대회, 1994 릴레헴메로 대회에 출전한 남자 싱글 정성일에 이어 두 번째다.



4일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차준환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차준환은 2018 평창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에 올랐고, 2022 베이징 대회에선 자신의 기록을 넘어 5위를 기록했다.

김현겸은 프리 스케이팅 156.14점, 최종 점수 255.74점, 1, 2차 선발전 합산 점수 467.25점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남자 싱글 선수 중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